

경험으로서의 민주화운동: 지역 여성의 기억과 기념의 미래

문경희

(국립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목차

1. 경험으로서 민주화 운동 들여다보기
2. 민주화 운동과 여성
3. 3.15 마산의거 기록과 기념
4. 기억에서 기념으로의 전환
5. 3.15 마산의거 여성 구술기록사업 - '모자이트 기록 프로젝트'

1. 경험으로서 민주화 운동 들여다보기

- Brain storming questions

- 1) '민주화 운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 2) '민주화 운동'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본 '민주화 운동'



대표 사건

- 5.18 광주민주화 운동
- '민주화 운동' 이라는 공식 이름

참고) 명명의 정치

- 6.10 항쟁
- 3.15 의거
- 4.19 혁명

1. 경험으로서 민주화 운동 들여다보기


- 민주화(democratization):
 - 정치·경제·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
- 민주화 운동(democratization movement):
 - 군사독재정치와 같은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확립을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모든 활동

1. 경험으로서 민주화 운동 들여다보기

• 경험(experience):

사전

정의 출처: [Oxford Languages](#) · [자세히 알아보기](#)

 경험, 經驗

명사

1. 보거나 듣거나 느끼면서 겪는 것.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산 ~"
2. **철학**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 내지 지각 작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
"~주의"

- 추상적, 모호한 개념
- 몸(body)으로 겪은
- 몸: 신체적, 물질적, 수행적, 상징적(혹은 외부에 의해 조작이나 착취, 훼손될 수 있는) 실재
- 다양한 몸의 주체: 성별, 계층, 세대, 인종(혹은 에스닉 배경 등)
- 마음(mind)는 몸의 일부인가?

1. 경험으로서 민주화 운동 들여다보기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 시민과
계엄군 소속 군인의
경험은 동일한가?

시위 참여자와 그 어
머니의 민주화 운동
경험은 동일한가?

출처: 중앙일보
(2018.5.17)

여성의 경험으로서 전쟁



2015 노벨문학상 수상

다성악 같은 글쓰기로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담아낸 기념비적 문학
_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

서평

한국여성학 제32권 4호 (2016년) pp.165~177

여성의 경험으로 알려주는 전쟁의 진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박은정 옮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2015

문 경 희*

여성의 경험으로서 전쟁

- 벨라루스 출신 저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Svetlana Alexievich)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여 년 동안 '침묵' 하고 있었던 수백 명의 여성들과 면담
- 책을 쓰게 된 계기

우리는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알았다. 우리는 모두 '남자'가 이해하는 전쟁, '남자'가 느끼는 전쟁에 사로잡혀 있다. '남자'들의 언어로 쓰인 전쟁. 여자들은 침묵한다.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우연히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그건 '남자'들의 전쟁 이야기이지, '여자'들의 전쟁은 아니다. (17쪽)

“하지만 왜?”

절대적인 남자들의 세계에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해놓고 왜 여자들은 자신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을까? 자신들의 언어와 감정들을 지키지 못했을까? 여자들은 자신을 믿지 못했다.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이 통째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여자들의 전쟁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바로 이 전쟁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 여자들의 역사를. (18쪽)

여성의 경험으로서 전쟁

"사람이 전쟁보다 귀하다"

범한 일상의 풍경으로 변신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여성들은 신문이나 책 따위에서 이야기를 끌고 오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 도중 자신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의 인생의 굽이굽이들을 행복과 눈물로, 고통과 아픔으로 전했다. 작가는 이에 대해 '여성'들의 이야기는 "영웅심 따위에, 어떻게 퇴각했는지, 어떻게 공격을 감행했는지, 어떤 전선에서 싸웠는지"에 집중하는 '남자'의 전쟁 이야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깨닫는다(19쪽). 이러한

여성들이 겪은 또 다른 전쟁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소. 내 아내 같이 똑똑한 여자도 여자병사들을 좋게 보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녀들이 남편감을 찾아 전쟁터에 간 거고, 그곳에서 연애질만 실컷 하다가 왔다고 믿었어요. 이왕 터놓고 얘기한 김에 하는 말인데, 실제로 소녀병사들은 대부분 정숙한 처녀들이었어요. 순결한 처녀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더러운 오물도, 들끓는 이도, 시신들도…… 더 이상 안 봐도 되자 뭔가 아름다운 게 그리워지더군요. 뭔가 밝고 화사한 그런게…… 아름다운 여인들…… 친구 한 명이 있었소. 지금 내 기억으로는 꽤 예쁜 아가씨가 그 친구를 사랑했었소. 간호병이었죠. 하지만 친구는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제대하자 다른 여자, 더 예쁜 아가씨를 만나 결혼했지. (169쪽)

여성의 경험으로서 전쟁

-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 남자들뿐 아니라 여성들도 전쟁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였음
 - 그러나 전쟁에 참전한 여성의 경험은 남성과 달랐음
 - 남자들과 똑같이 전장에서 소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탱크와 전투기를 조종했던 200여 명의 여성들이 들려준 '더 현실적이고 더 잔혹하며 더 실제적'인 전쟁의 이야기
- 페미니스트 국제관계학(IR) 연구자들
 - IR이 전통적으로 주목한 전쟁 주체는 국가, 군대, 국제기구, 최근 원리주의자들 등
 - 전쟁의 승패, 국제 무기체재와 전투 전략, 전쟁으로 재편되는 국내외 정치경제질서 등
 - 페미니스트 IR 연구자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일반인들의 미시 서사에 주목

여성의 경험으로서 전쟁

- 스와티 파라샤르(Swati Parashar, 2013)
 - "IR은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나,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있었던 순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으로든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쟁은 삶을 살아가는 한 방식이 되고, 일상 행위가 되기도 함
 - IR 전쟁 연구자들이 일상에서 전쟁을 치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결국 학문적으로 전쟁을 '타자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

여성의 경험으로서 전쟁

- 크리스틴 실베스터(Christine Sylvester, 2012: 284)
 - "경험으로서 전쟁"(War as Experience) 연구 제안 함

경험으로서의 전쟁'을 제안한 주요 이유는 IR 전쟁 연구자들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경험을 배제한 채 그들의 피와 눈물, 웃음 등을 무시한 '고위 정치(high politics)'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실베스터는 일상적으로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중

'고위 정치'에 초점을 맞춘 IR 연구들이 전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떤 협상을 일상적으로 하는지 등을 포착하는 데에 실패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전쟁을 겪고 있는 개인들의 신체적, 감정적 경험에 대한 서사는 실제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왜 어떤 공동체나 민족은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에 참여하는지 등, 거시적 서사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에 유효하다.

여성의 경험으로서 전쟁

- 참전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전쟁' 이야기는 가부장적 국제정치 비판에 유효
 - '여성, 평화와 안보 유엔 1325호 결의안(UNSCR 1325, 2000년 채택)
→ '남성=보호자', '여성=피해자' 이분법적 젠더 관점 유지
 - 결과적으로, 전후 평화협상에 여성의 참여 부재를 당연시함
 - 전후재건사업에서 여성 '전사'의 트라우마적 고통과, 슬픔, 두려움, 애국심, 자존심 등 다양한 감정에 대한 고려 없음
- 참전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전쟁' 이야기는 평화서에 가깝다.

1. 경험으로서 민주화 운동 들여다보기

- 경험을 통한 기억 연구: 언어와 기록의 지대에서 소외된 온 소수자, 약자, 억압받는 자, 변경에 서 있는 자들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역사의 다원성과 다면성 파악(인간의 역사를 '밑에서부터'(bottom up) 조명)
- 민주화 운동 참여했던 여성 시위 참여자 구술 채록의 의의
 - 개인, 지역적 맥락에서 당시 상황 파악 (시위 참여 동기, 과정, 신체적-감정적 경험, 의거 이후 시점에서 현재로 이어진 경험의 연결성 등)
 - 당사자의 서사 파악 (국가 중심, '영웅' 중심 서사 구조 탈피)
 - 민주화 운동의 젠더적 특성 파악 (운동, 기억, 기록의 남성 중심성, 신체적, 감정적 경험의 젠더 차이 등)
 - 여성의 신체적, 감정적 경험을 통해 살펴본 국가 폭력, 시위, 저항 양상 기억, 평가 등 고찰
 -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항 기록 제공 등 (가해-피해 이분법적 특성 탈피)

2. 민주화 운동과 여성



세상은 남성들만
바꿨나?

• Invisible women!

2. 민주화 운동 - 1987. 6월 항쟁

1987. 6.10~ 29.

The June 10 Uprising

*“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Abolishment of dictatorship! For democracy! ”*

Photos from
Prof. Roland Bleiker
(Univ. of Queensland)

2025-02-13

South Korea 1980s: Authoritarian
Military Dictatorship/ Chun Doo-Hwan



2. 민주화 운동 - 1987. 6월 항쟁

Small Student Protests



Student Protests Grow but Limited to University



2. 민주화 운동 - 1987. 6월 항쟁

Ritualized Violence



2. 민주화 운동 - 1987. 6월 항쟁

Protests Grow from Universities to Rest of Country



2. 민주화 운동 - 1987. 6월 항쟁

Middle Class Becomes Invol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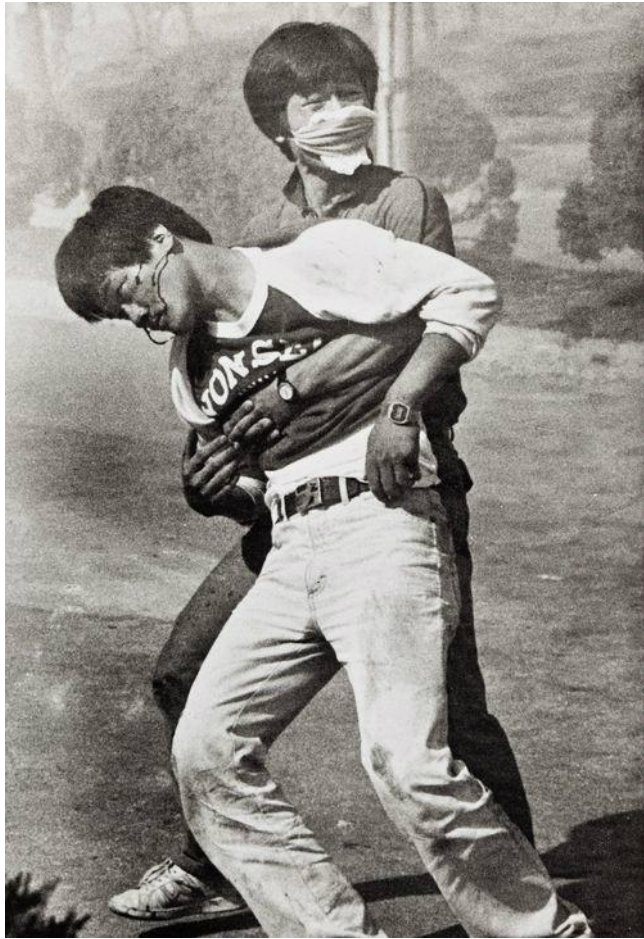


2. 민주화 운동 - 1987. 6월 항쟁

The Power of Nonviolent Dissent



2. 민주화 운동 - 1987. 6월 항쟁



이한열 열사의 사망과 장례식(오마이뉴스, 2019.04.25)

2. 민주화 운동 - 1987. 6월 항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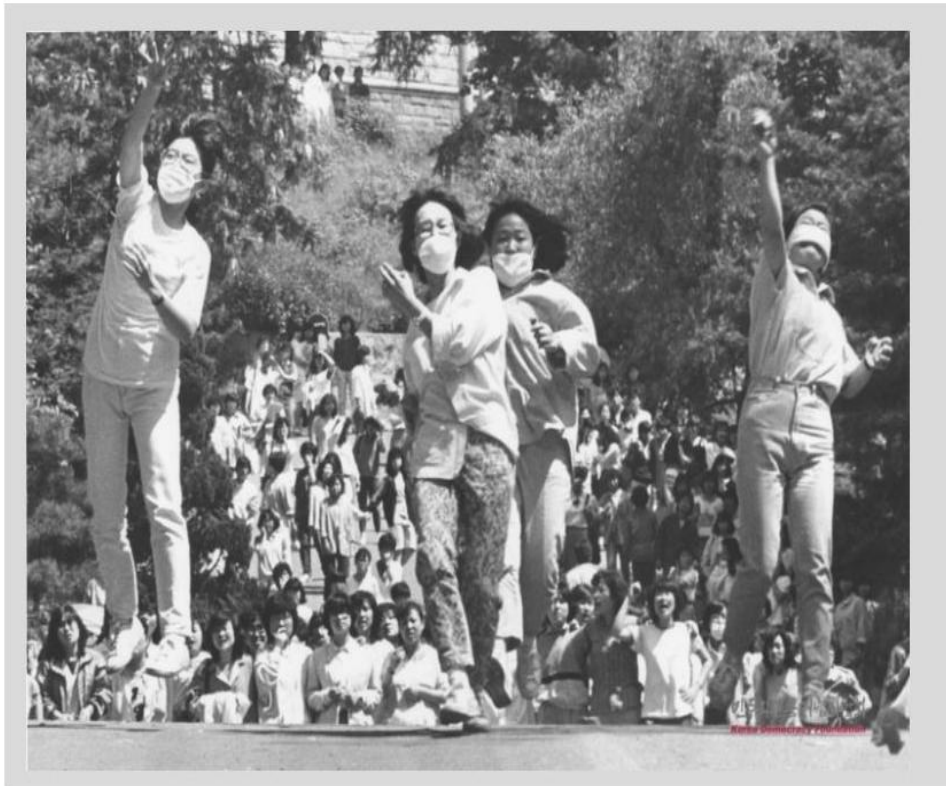
이한열 열사 장례 집회 시위 - 서울 시청 앞을 가득
메운 100만영의 시민 (1987.7.9)

2. 민주화 운동 - 1987. 6월 항쟁



민주항쟁 당시 부산에서 최루탄
발사를 막기 위해 선두에 선 시민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 민주화 운동과 여성 - 1987. 6월 항쟁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시위 1987년 6-10항쟁 전, 이화여대생 사진. '80년 5월에서 87년 6월'의 사진집 첫 페이지에 실려 있다 (저작권자 윤석봉 전 로이 터통신 기자, 눈빛출판사 제공) © 윤석봉



2. 민주화 운동과 여성 - 1987. 6월 항쟁



"그때 여성들 고추장으로 '전두환 타도' 쓰며 외쳤다"

[1987, 연희 ①] 유시춘 작가 "유치장에서 하루라도 잔 여성 모으고 싶어"

18.01.21 20:31 | 최종 업데이트 18.01.22 10:56 | 글: 신나리(dorga17) | 사진: 이희훈(lhh) | 편집: 김시연(staright)

"내가 이 사진의 주인공을 너무 찾고 싶어서 2006년 신문에 광고도 냈잖아요. 결국, 찾았지. 지금 LA에서 주부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이걸 6.10항쟁을 기념하는 사진집 맨 앞에 넣고 싶었어요. 여성의 역사는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있었다, 여성들도 있었다, 우리도 침묵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2. 민주화 운동과 여성 - 1987. 6월 항쟁



"교도소장을 접견한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 때 교도소는 자해한다고 연필도 허락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학생 여섯 명이 하얀 러닝을 찢어 앞뒤로 이어붙인 다음에 거기에 고추장으로 '전두환 타도'를 쓴 거예요. 고추장으로요. 그리고 그걸 교도소 창틀 밖에 내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교도소에서 서신, 접견도 안 되는 벌을 받은 거죠. 전혀 풀지도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교도소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고요."

"제가 68학번인데요, 문과대에 입학했을 때 1700명 중에 여자가 47명 있었어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아마 1% 됐을 거예요. 여성들이 대학에 가고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도 다들 참 열심히 싸웠어요. (1982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때 구속된 사람 중 연대 신방과에 다니던 여학생이 있었고, 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학생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도 여학생들이 나섰어요. 그때 1200명이 구속됐는데, 여성이 최소 300명은 됐을 거예요. 다만, 기록되지 못했을 뿐이죠."

"몇 년 전에 '유치장에서 하루라도 잔 논 모여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봤어요. 독재정권에서 싸웠던 여성들을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들 조용히 살고 있으니까요. 국회의원이 됐거나 어디서 한 자리씩 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모두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사는 거죠. 아마 자신의 삶 안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젠더 관점에서 다시 보는 민주주의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요. 지금이 그때였으면 좋겠어요."

2. 민주화 운동과 여성 - 1987. 6월 항쟁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

기록으로 만나는 서울대(2022.06.16)



1986년 3월 4일 명동 수녀교육관 앞에서 양식수 석방요구 구호를 외치는 민가협 회원들. 이날은 민가협이 첫 가두시위에 나선 날이었다. / 이경은 제공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경향신문 (2018.01.27)

2. 민주화 운동과 여성 - 1987. 6월 항쟁



1987년 6월 18일 '최루탄 추방의 날' 당시 한 민가협 회원이 전경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경향신문 (2018.01.27)



* 시위대를 막고 있는 전경들에게 최루탄을 쏘지 말라는 당부를 하며 꽃을 달아주고 있는 여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0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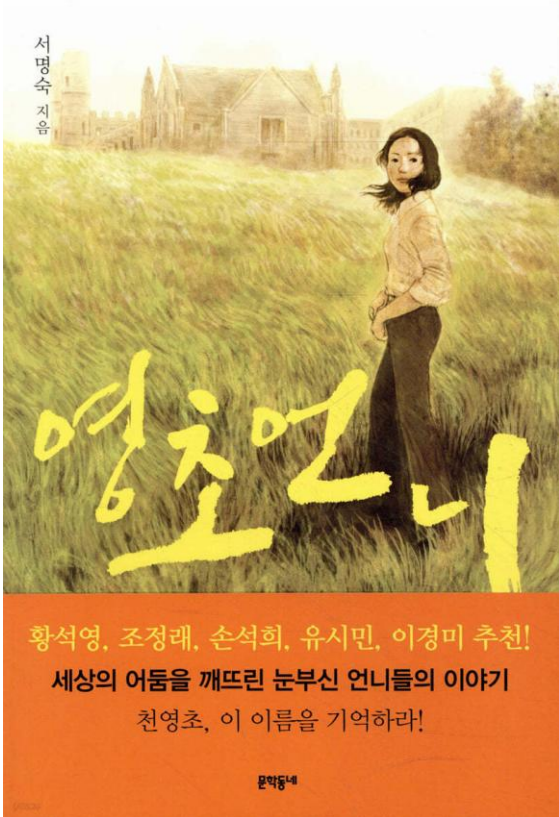
2. 민주화 운동과 여성

- 국가 성폭력 피해자
 -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고문, 성폭행
 - 여성에 대한 성고문 (부천 성고문 사건, 1986년)
- 운동 진영 내 성차별, 성폭행
- 역사 기록에서 누락: 엘리트 남성 위주의 서사 구성, 경험 기록
- 민주화 운동 리더들 → 정치, 언론계, 문화예술계 진출

2. 민주화 운동과 여성

- 여성의 경험으로서 민주화 운동이 알려주는 것
 - 여성도 그 자리에 있었다!
 - 여성의 운동 참여 방식: 같이 싸우고, 후방 지원도 하고
 - 어머니, 누나, 언니, 여동생의 경험: 아들, 동생의 옥살이 지원, 가두시위 비폭력 시위 (진압) 문화 형성 등
 - 기록에서 여성의 존재와 역할 부재 - 이유?

2. 민주화 운동과 여성



천영초와 서명숙, 두 여성의 젊은 날에는 박정희 유신정권 수립과 긴급조치 발동, 동일방직 노조 동물 사건, 박정희 암살,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촘촘하게 맞물려 있다. 저자는 언론인 출신 특유의 집요하고도 유려한 글쓰기로 독재정권하 대학생들의 일상과 심리적 풍경을 섬세하게 복원해나가며, 한 여자가 어떻게 시대를 감당하고 몸을 갈아서 민주화에 헌신했는가를, 그리고 그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겪었는가를, 그 결과 어떻게 망가져갔는가를 증언한다. 그 과정에서 나아린 여대생들에게 당대의 고문형사들이 가한 소름 끼치는 협박과 고문들, 긴급조치 9호 시대 여자 정치범들이 수감된 감옥 안의 풍경이 영화처럼 펼쳐진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40925993>

3. 3.15 마산 의거의 기록과 기념



3.15 마산 의거 기념 사업회 홈페이지

3. 3.15 마산 의거의 기록과 기념

3·15의거 60주년기념 홍보영상

3·15 마산 의거(三一五馬山義舉)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일어난 시위

[영상보러가기 >](#)



<http://masan315.net/2021/>

3. 3.15 마산 의거의 기록과 기념

since 1960
3·15의거 아카이브
Archive of 3-15 Movement For Democracy in Korea

오늘은 1960년 3-15의거가 있던 뒤 23522일 지났습니다.

3·15의거 소장기록물 통합검색 사진 영상/음성 회지

3·15의거 통합검색 검색

이 페이지를 공유합니다!  

참고검색어 김주열 시위를 펼치고 있는 315의거탑

3·15의거 관련
소장기록물
사 진
동영상
도 서



항거하다 꽃다운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청년학도들

김주열 의사의 시신을
앰블런스에 옮겨 놓고 있는 광경

마산 성지여고
학생들의 시위 광경

김주열 의사의 시신을 인양한
시민의 인터뷰 장면

이대통령 퇴진
시위를 펼치는 여성들

3.15 마산 의거 기념 사업회 홈페이지

3. 3.15 마산 의거의 기록과 기념



3.15 마산 의거 기념 사업회 홈페이지

3. 3.15 마산 의거의 기록과 기념

3·15의거 관련 소장기록물

사 진 ●
동영상 ●
도 서 ●

제목	분류	저자	출판사	발행일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	시집	(사)3·15의거기념사업회	도서출판 불회	2001.09.09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후 그 과제	논문	(사)3·15의거기념사업회	다담커뮤니케이션즈	2011.12.02
꽃바람 꽃샘바람	소설	김춘복	도서출판 두엄	2010.09.27
3·15의거시전집	시집	(사)3·15의거기념사업회	청아문화사	2010.11.30

3.15 마산 의거 기념 사업회 홈페이지

3. 3.15 마산 의거의 기록과 기념

3·15의거 한눈에 보기

항쟁의 의의

현대사에 있어 최초의 민주·민족운동



발생배경

정치적 원인과 사회적원인



상황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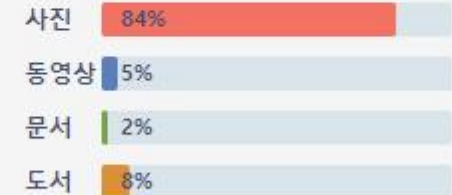
1차 항쟁과 2차 항쟁



3·15의거 아카이빙 현황

· 공개 보유 기록물 8330건

· 기록물 유형별 현황



3.15 마산 의거 기념 사업회 홈페이지

3. 3.15 마산 의거의 기록과 기념



“평범한
이름이
역사를
만든다”

<https://www.youtube.com/watch?v=TeocWm4NHVI&t=63s>

창원시 역사 1분 다큐 [RE:]



창원시 공식 유튜브 (추천창원)
구독자 3.88만명

구독

14



공유

오프라인 저장

저장



3. 3.15 마산 의거의 기록과 기념

- 무엇을 기억, 기록했는가?
 - 발생 배경, 원인 (왜 마산?, 왜 1960년 3.15?, 정치적? 사회적? 등)
 - 전개 (발발 - 3.15 부정선거 → 시민과 학생 시위 가담 → 민주당원 시위대 합류 → 수천 명 마산 시민 합류 → 경찰의 사격 → 다음 날 진상조사 → 검찰, 경찰의 마산의거에 대한 용공 조작 시도 등)
 - 결과 (사상자와 부상자 피해현황 파악, 4.11 제2차 마산의거, 외부 반응, 혁명재판과 발포 책임자, 고문 경관 처벌 등)
- 개인 경험으로서 기억? (선거 민주주의, 부정부패 독재권력 타도 등의 성취와 그 과정에 겪은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경험이 개인에서 지역, 국가, 국제사회의 민주화 경험으로 확장되어 나갔는가?)

3. 3.15 마산 의거의 기록과 기념

[관련법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7730호, 2002. 9. 1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649호, 2005. 7. 29.)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4호, 2010. 3. 12.)
- 광주광역시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조례 제4292호, 2013. 10. 1.)
- 경상남도 3.15마산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조례 제3017호, 2003. 12. 26.)
- 국립4.19묘지 규정(대통령령 제17668호, 2002.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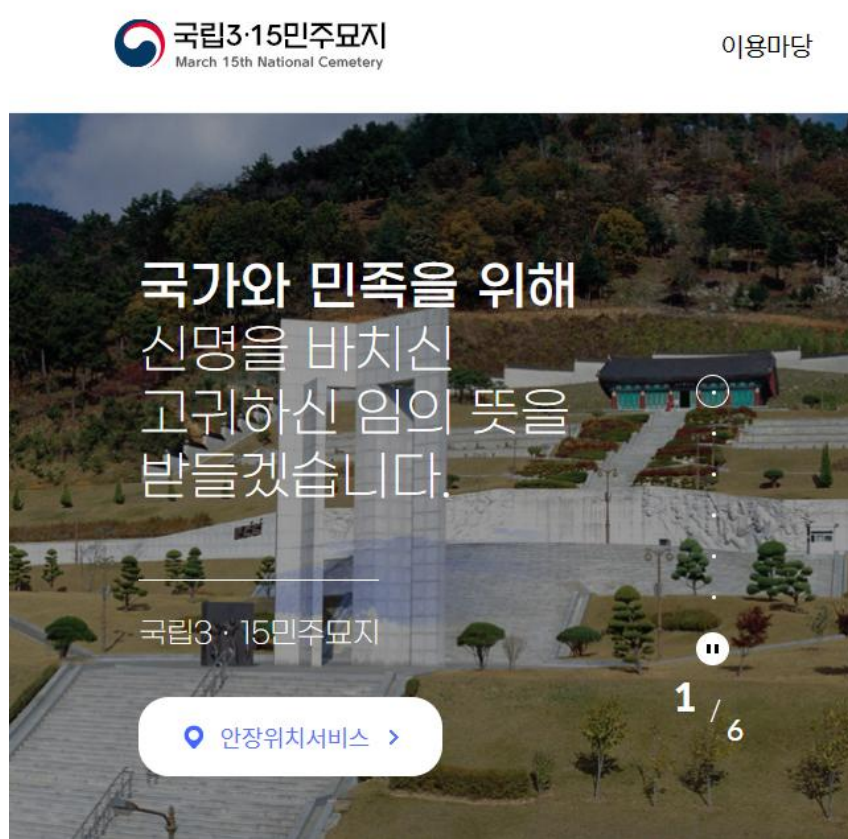
[기념 시설]

국립3.15민주묘지

기념 단체	3.15의거기념사업회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75
시설배치	민주의 문(탑), 정의의 상, 참배의 공간(참배단, 정의의 벽, 민주의 햇불), 3.15기념관, 유영봉안소, 상징문, 기념시비

3. 3.15 마산 의거의 기록과 기념

- 무엇을 기념하는가?



4. 기억에서 기념으로의 전환

- 기억의 시대?
 - '국가를 위한 죽음'? '국가에 의한 죽음'? (애매한 죽음=시대의 희생?)
 - 과거에는 국가를 위한 죽음에 초점 (전쟁 참전 군인, 군경, 학도병 등), 1990년대 이후 '국가에 의한 죽음'(좌익, 군경과 우익 민병대에 의한 학살 피해자,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기억, 기념 붐이 일어남
 - 독립운동가만 기억하는 시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도 기억, 기념하는 시대로
 - '위원회'의 시대: 과거사 진실규명, 진실화해 위원회 등
 - 기억투쟁: 정치가 어떤 역사적 사건 해석과 기억을 둘러싸고 전개됨 ('란'이 혁명으로, '폭동',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 피해자로 등)

(참고자료: 최호근(2019년), <기념의 미래>,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4. 기억에서 기념으로의 전환


- 기억의 시대?

- 집단 기억: 기억은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님, 부담스러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자연적 소멸과 망각에 의한 침식, 착종과 변형, 왜곡과 조작 가능성을 직시하면서, 부단히 가공해야 하는 과정 의미
- 사회적 기억 형성 → 사료화의 어려움?
- 희생자의 죽음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서 사회, 정치적 공인이 일단락되고 나면, '기억의 제도화' 과정으로 진입
- 진실규명, 정의구현, 화해 실현 중심의 위원회 사업 → 공적 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각종 기념 재단과 기념 시설 설립, 역사교과서 수정
- 각종 기념 시설 조성,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교육기관 신설 등

4. 기억에서 기념으로의 전환

- 기억의 과잉 시대 – 기억, 기념에 대한 피로도?
 - 가해 책임을 강조하는 기억에 대한 피로 문제
 - 기억의 사소화 현상
 -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세대에까지 반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감
 - 기억의 정치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적 해석,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
- 3.15 마산 의거 기억과 기념의 미래?
 - 이승만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 시도(이승만 국부론, 건국절 논란 등)
 - 기억 투쟁 → 역사 전쟁

4. 기억에서 기념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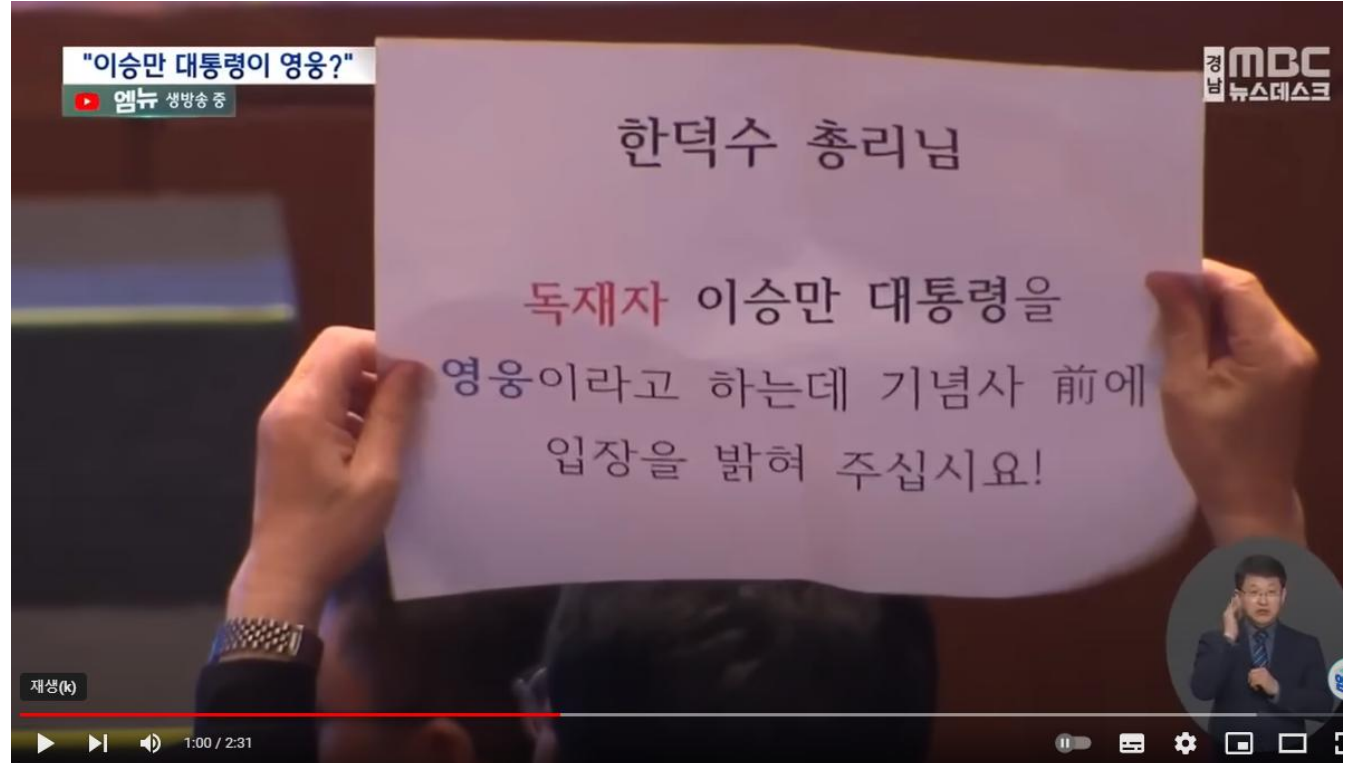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독재자 기념사업 심부름센터인가?

3.15 민주외거, 이승만기념관 반대 각계 기자회견
헌법 부정·국격 훼손·독재 미화·역사 왜곡
이승만기념관 반대한다!

때 2024년 3월 15일(금) 11:30
곳 열린송헌 녹지광장 안국동 광장측 입구

주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 몽양아카데미 |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국회프락치기억연대 | 사월혁명회 | 전국민중행동 | 전국비상사국회의
제주4.3범국민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한국독립동지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해살자전국유족회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6.10만세운동유족회

문의 02-969-0226 (민족문제연구소)



"이승만 대통령이 영웅?"
엠뉴 생방송 중

한덕수 총리님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하는데 기념사 前에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재생 (0)

1:00 / 2:31

제 64주년 3.15의거 기념식 중 실랑이...왜? (2024.3.15/뉴스데스크/MBC경남)

엠뉴 | MBC경남 NEWS
구독자 23.9만명

구독

4.5천

공유

공유

오프라인 저장

저장

<https://www.youtube.com/watch?v=3eQljZhKaOA>

4. 기억에서 기념으로의 전환

- 기념 문화

- 묘지, 봉안관, 전시교육시설, 기념탑 등 정형화된 유형
- 기념사업에 대한 문화적 감성과 상상력이 요구됨(교과서+예술 영역 등 - 소비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전유 과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
- '평범한 의인'들의 '양심에 따른 선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저항, 희생, 피해, 의로운 죽음, 피해자의 존엄 등에 강조와 함께 그들의 '양심에 따른 선택'의 내용, 가치, 그 가치가 후세대로 얼마나 잘 이어져서 존중되고 있는가 등에 대한 기념도 중요)

- 기억은 과거의 현재의 것이라면, 기념은 미래의 것:
- 미래 국가공동체의 정체성과 공동체 운영의 근간이 될 가치, 이념에 관한 것
- 기념은 곧 미래 교육

4. 기억에서 기념으로의 전환

- 현재 진행형인 3.15 마산의거 기록 사업

진실화해위 "3.15의거 때 여고생 대규모 시위 참여도 확인"

최아무개씨 등 4개 여고생 28명 진실규명 결정... "명예 선양과 기념사업 등 권고"

23.10.18 08:01 | 최종 업데이트 23.10.18 09:17 | 윤성호(cjnews) ▾

OhmyNews

+크게 | -작게 | 인쇄 | URL줄이기 | ☆스크랩



본문듣기 | 원고료로 응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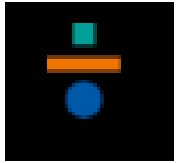
👍 4 | 💬 댓글달기



▲ 경찰들이 3·15의거 당시 성지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강력한 저지선을 펼쳐 학생들의 행

4. 기억에서 기념으로의 전환

- 현재 진행형인 3.15 마산의거 기록 사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1115.html

사회 사회일반

학생뿐만 아니었다...마산 할매·할배 시위, 이승만 끌어내렸다

진실화해위 진실 규명 결정

1960년 4월24~25일 "정권 퇴진" 내걸고 시위 시위 동력 주춧할때 시민들 대규모 참여 이끌어 부산시민 마산 원정시위도 추가 사망자 등 확인

기자 고경태

수정 2023-12-20 10:30 등록 2023-12-20 10:30



1960년 4월24일 할아버지 시위대가 마산 시내를 행진하는 모습이다. 진실화해위 제공



1960년 4월25일 할머니 시위대가 마산 시내를 행진하는 모습이다. 진실화해위 제공

'모자이크' 기록 프로젝트 모집

3.15민주항쟁에 참여한 지역 여성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모자이크 기록 사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구술채록과 도서발간 작업을 직접 진행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모집 대상 : 학부생 25명 선착순(구술채록 20명, 촬영 5명)

■ 운영 기간 : 2024.06.10.(월) ~ 12.(7개월 내외)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 일정: 2024.05.29.(수) 9:00 ~ 06.04.(화) 18:00

■ 신청 방법: 이뤘드림 신청

■ 활동 내용

- OT 및 특강 참여, 인터뷰 진행 및 현장답사, 원고집필

※ 인터뷰 총 2-3회 진행

- 국내 성과공유회 진행

- 도서 발간

- 우수 참여자에 한하여 일본 나고야 난잔대학에서

국제학술교류회 진행 예정('24년 11월)



교육 사업

2024년 동아리 활동 모자이크 기록 프로젝트

5. 3.15 마산의거 여성 참여자 구술기록 사업

세부 추진 내용

- **학생 모집과 OT** (2024년 5월 ~ 7월)
 - 프로그램 소개 작업 및 교육 프로그램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 행정사항, 사용할 프로그램 양식 등 안내



- **워크숍 및 강의 진행** (2024년 8월)
 - 지역의 3.15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 진행
 - 3.15의거 기념탑, 민주묘지 등 현지 답사
 - 에세이 작성을 위한 글쓰기 강의 구술 대상자와의 만남



5. 3.15 마산의거 여성 참여자 구술기록 사업

현지조사 및 워크숍 (2024년 8월)



5. 3.15 마산의거 여성 참여자 구술기록 사업

구술자 (이영자, 정성자, 구영자, 최화자)



5. 3.15 마산의거 여성 참여자 구술기록 사업

모자이크 기록 프로젝트 국제학술교류회 (2024년 11월)



모자이크 기록 프로젝트 『국립창원대학교-난잔대학교 대학생 국제학술교류회』 (11월)

学术セミナー

9 NOV 2024
SATURDAY
9:30-12:30
GLS
ラーニング・コモンズ
南山大学0棟7階

第2回
南山大学×昌原大学
学术セミナー
IN JAPAN

プログラム内容

第1部 9:30～
Moon Kyounghee教授の講演
『Democratization Movement as Experience:
Local Women's Memories and Oral History Project』
昌原生のプロジェクト発表
『CWNU Students' Archiving Project of Local Women Who Experienced
the 3. 15 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

第2部 10:30～
南山大学と昌原大学の学生による合同プロジェクト発表
Team 1: Neighborhood Diversity
Team 2: Home in My Mind
Team 3: Language And Power

第3部 11:30～
全体ディスカッション

申し込みはPORTA
アンケートから
10/31 (木) 締切

お問い合わせ先: 南山大学国際教養学部事務局
Phone: 052-838-8877 (直通)
E-mail: gls-office@nanzan-u.ac.jp

国際教養学部

모자이크 기록 프로젝트 『국립창원대학교-난잔대학교 대학생 국제학술교류회』 포스터 (11월)

5. 3.15 마산의거 여성 참여자 구술기록 사업

세부 추진 내용

성과공유회 및 출판기념회 『청년, 3.15의 여성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다』 개최 (2024년 12월 24일)

• 모자이크 기록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개최

- 공동주최: 꿈꾸는 산호 작은도서관, 3.15의거 기념사업회
-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과 발표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소감 공유
- 구술대상자, 지역 기관, 지역 주민들과 성과 공유
- 경남민예총, 성산도서관, 경남대학교, 창원시청, 목향수필문학회, 창원시립예술단 등 지역의 다수 기관 참여



5. 3.15 마산의거 여성 참여자 구술기록 사업

『청년, 3.15의 여성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다』

• 학생들의 구술사 에세이 모음집 발간

- 모자이크 기록 프로젝트 최종성과물

『청년, 3.15의 여성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다』(비매품) 발간

-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역사회 및 기관과 공유

• 언론 보도

- <경남도민일보> 전면 기사(2024.11.26), <경남신문>(2025.01.07)

- <헬로tv뉴스> 보도 및 참여학생 인터뷰(2025.01.13)



5. 3.15 마산의거 여성 참여자 구술기록 사업

- '모자이크' 기록 사업을 마치며...
 - 기억의 장에서 주변화, 소외된 '평범한 의인'들 발굴
 - 여성 개인의 경험으로서 3.15 마산의거 기록
 - 그들이 한 '양심에 따른 선택'의 맥락 파악
 - 3.15 마산의거와 post-3.15 마산의거로 이어지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험, 사회적, 정치적 영향 등 주목
 - 3.15 마산의거와 지역, 그리고 나, '우리'와의 연계성 고찰 (민주주의, 국가폭력, 가족, 친지 혹은 이웃 등 지역공동체의 정치 문화 등)